음대소식

2009 08 Vol. 005

발행인 : 정 태 봉 | 발행처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TEL : 02)880-9320 | FAX : 02)882-9320 | 발행일 : 2009년 8월 31일

Vol. 005 / August 2009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5호

목 차

01 학장님 인사말씀

02 음대주최 주요행사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화요음악회

03 연구소 소식
-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04 국악과 유럽순회연주
- 유럽순회연주 기사 및 사진

05 유럽순회연주 인터뷰
- 교수님 인터뷰(이지영 교수님)
- 학생 인터뷰(석사과정 양희진)

06 외국인 교수 인터뷰
롤란트 브라이텐펠트 교수, 아비람 라이커트 교수, 윌러리 펀첨 성 교수

07 음악대학 단신
- 섬머아카데미
- 학부모 초청행사
- 국악과 강사준 교수 정년퇴임식
- 음악대학 동창회 소식
- 후기 학위수여식
- 음대 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 음대시설 개선 현황

11 - 교수동정, 콩쿨 입상 소식
- 서울음대 프렌즈
- 서울음대 발전기금

학장 인사말

여름빛이 걷히기 시작하는 관악을 바라보며

유난히 비가 많았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질기게 계속되어 곡식이나 과일이 잘 여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피해나 손해를 입은 농가가 적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무더운 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여름은 여름이라 에어컨의 도움이 없이는 일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날이 많았고,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기도 어려워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던 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름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을 테지만 관악산의 빛깔도 이제 서서히 변해가겠지요. 우리도 새로운 결실을 위하여 긴장의 끈을 조이고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대학은 지나간 겨울, 봄 그리고 여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음악대학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일, 칭찬 받을 만한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 외적으로 그러합니다. 바람직한 움직임 또는 창조적인 움직임이 우리에 의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요.

이번 제5호에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의 우리 음악대학 관련 소식들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6월에 제5호가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서 8월에 걸쳐 참 중요한 행사와 일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결과를 제5호에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늦춘 것입니다. 소식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노라면 발행이 늦어진 까닭을 아실 터이니 공연히 발행을 늦추었다고 꾸짖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름빛이 걷히기 시작하는 관악을 바라보며, 음대소식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9년 8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 태 봉

정태봉 교수 제 28대 음대 학장 연임

작곡과 정태봉 교수가 2007년 9월 1일부터 2년동안 음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2009년 9월 1일부터 제 28대 음대 학장으로 연임한다.

음/대/주/최 주/요/행/사

2009. 3. 1 ~ 2009. 8. 31

성악과

- 3월 11일 개강 음악회 & 신입생 환영 음악회
- 3월 16일 신입생 환영회
- 3월 30일~4월 1일 성악과 세미나
- 5월 13일 Alan Bennett 마스터 클래스
- 5월 14일 성악과 일일 장터
- 5월 26일 종강 연주회

작곡과

STUDIO 2021
〈2009 SPRING SEASON〉

I. Composer's Studio 〈Simon Bainbridge〉
- 3월 20일 Composition Lesson
- 3월 23일 Lecture

II. Korean Music Project
- 4월 13일 Lecture | 구본우
- 4월 14일 Workshop
- 4월 15일 Lecture | 백병동
- 4월 15일 Concert

III. Performer's Studio
Valerio Fasoli(Fl.), Marco Bidin(Cemb.)
- 5월 11일 Workshop Concert

기악과 피아노 전공

- 4월 3-6일 신수정 명예교수님 마스터 클래스
- 6월 10일 Ian Hobson 마스터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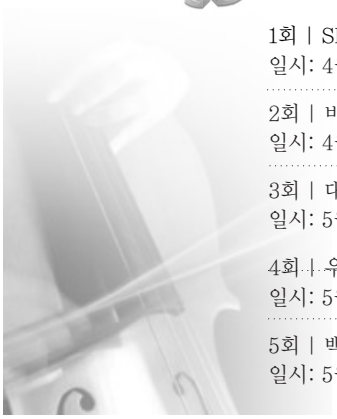
기악과 현악, 관악 전공

- 3월 9일 빈 음대 교수 Hans Georg Schumenizer(Flute) 마스터클래스
- 3월 13일 노스 택사스 음대 교수 Edual Leandro(Percussion) 마스터클래스
- 3월 17일 Tilmann Vick 마스터클래스
- 4월 1일 Steven Tenenbom 마스터 클래스
- 4월 1일 Todd Philips 마스터 클래스
- 5월 12일 동경예술대학 학장 김창국 (Flute) 마스터클래스
- 5월 21일 SNU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
- 5월 22일 SNU Percussion Group 정기연주
- 5월 23일 줄리어드 음대 교수 Gorden Gottleil(Percussion) 마스터클래스
- 5월 25일 멘델스존 200주년 기념 SNU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
- 5월 26일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
- 5월 28일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6월 2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 6월 13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국악과

- 4월 25일 국악과 창설 50주년 기념 전통음악연주회
- 6월 17-29일 SNU 국악앙상블 유럽순회연주
- 8월 24-29일 하계음악캠프

2009년 1학기 서울대생과 관악구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S

1회 | SNU 앙상블 The Gift & Müzen & Claritas Quintet
일시: 4월 21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회 | 비올라 다 감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위하여
일시: 4월 28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3회 | 대만 작곡가 초청, Chai Found Music Workshop
일시: 5월 12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회 | 우리가곡연구회, 관악 캠퍼스에서 함께 하는 '우리가곡 축제'
일시: 5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5회 | 백청심 교수와 SNU Celli Ensemble
일시: 5월 26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009학년도 가을학기 예정 행사

2009. 9. 1 ~

작곡과

STUDIO 2021
〈2009 AUTUMN SEASON〉

FESTIVAL"ACCENTO"

I. Clarinetist Eduard Brunner 초청 Lecture Concert
- 9월 12일(토) pm 1:00 예술관 콘서트홀 | Lecture Concert
- 9월 18일(금) pm 8:00 부천시민회관 | 관현악 연주회
- 9월 19일(토) pm 8: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실내악 연주회

II. Composer's Studio 〈이인식, 이홍석〉
- 10월 13일(화) pm 6:30 예술관 콘서트홀 | Lecture Concert

III. Composer's Studio 〈Martin Bresnick〉
- 11월 16일(월) pm 1:00 | Lecture
- 11월 17일(화) am 9:00 | Composition Lesson

IV. Performer's Studio
〈Violinist 벤자민 성 & Pianist 장지혜 〉
- 12월 14일(월), 16일(수) am 10:00 55동 203호 | Workshop
- 12월 18일(금) pm 7:00 예술관 콘서트홀 | Concert

기악과 현악, 관악 전공

- 10월 24일 SNU Wind Ensemble 진주 이상근 음악제 초청연주
- 11월 14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17일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
- 11월 26일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
- 12월 12일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

국악과

- 9월 15일 국악과 제51회 정기연주회
- 9월 16일 동문음악회 및 제 10회 국제학술회의

연/구/소/소/식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전자음악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양음악연구소 제10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시: 9월 16일(수) /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주제: 아시아의 전래동요

기조발표: 이보형
김인숙, '한국의 전래동요'
시마조에 키미코, '일본의 전래동요'
이진원, '중국의 전래동요'
이용식, '중앙아시아의 전래동요'
박소현, '몽골의 전래동요'
탄 투앙 타오, '베트남의 전래동요'

12월 중, 동양음악연구소 학회지 〈동양음악 31집〉 발간 예정.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 2009년 1학기 -

가. 서양음악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IV〉
- 차호성,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한미숙,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일시: 2009년 4월 18일(토)
장소: 음악대학 시청각실

본 학술대회는 음악사에서 자주 거론되거나 연주되는 주요 작품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연구, 발표, 토론하는 정기 학술대회로, 특히 학생들에게 음악사에 대한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가 거듭할수록 보다 많은 관심을 모으는 본 학술대회는 일반 음악사 수업 시간에 접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음악학자들과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2009년에는 피나 바우쉬 안무의 〈봄의 제전〉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리톤 박흥우와 피아니스트 신수정의 〈겨울나그네〉실연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두 연주자의 공연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연주라 평가되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작품을 즉석에서 일류급 연주자들의 실력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음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보다 충실한 연구를 거쳐 단행본으로 출판됨으로써,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많은 학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Academia Musica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은 물론 음악학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기 행사이다.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것은 학문적 자극이 되며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음악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월 24일: 서정은(서울대), 〈락헨만의 음악미학 : 기악적 구체음악을 중심으로〉
- 4월 23일: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사 방법론〉
- 5월 8일: 이장직(음악전문기자), 〈음악비평〉
- 5월 14일: 조동성(서울대 경영대), 〈예술경영〉

작곡과 이론전공 공동주최 아카데미아 무지카: 조동성 초청 특강

다. 렉쳐 콘서트
음악학자들은 실제로 공연되는 음악을, 연주가들은 작품의 학문적 깊이를 자칫 간과하기 쉽다. 렉쳐 콘서트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주가이면서 학술적인 바탕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작품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 5월 1일: 여계숙(함부르크 주재 다중매체예술가), 〈작곡, 멀티미디어/비디오아트, 그리고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에 담긴 예술과 기술〉
- 5월 22일: 잉그릿 브라이텐펠트(리코더 연주가), 〈텔레만-유럽에서 음악사적 의미〉

렉처콘서트-잉그릿 브라이텐펠트

라. 학제 간 협동연구
-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공동 프로젝트 스터디〉: 신경 미학을 주제로 서울대 음대 교수들과 카이스트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 〈서울대 음악대학-서울대 의과대학 공동 뇌연구〉: 음악과 관련된 뇌의 활동에 대하여 음악학적이면서 의학적인 시각에서 토론하는 연구 모임이다.

마. 국제 합동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Musicology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sicology and Musical Culture〉 라는 주제로,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의 연구원 세 명과 일본 동경대의 예술과학 대학원의 연구원 두 명, 총 다섯 명이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음악학 역사를 비교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합동 연구이다.

바. 학생 연구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연구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원한다.
- 〈서울대 음악미학 연구〉: 음악미학 원전 강독
- 〈JMT (Junior Musicologist and Theorist)〉: 원어 논문의 편역, 발표, 토론

사. 공개강좌
서양음악연구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음악실기〉와 〈교회음악지도자〉 두 과정이 있다.

오페라연구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는 서울시오페라단과 연계하여 방학기간을 통해 나눔오페라를 공연하였다. 공연하는 작품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리골렛토', '라 트라비아타',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이며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이 주역 및 조역을 맡았다.

일 시: 7월 8일, 10일, 14일, 25일, 26일 / 9월 8일, 10일, 17일, 21일, 23일, 30일
장 소: 관악구청, 송파구청, 마포구청, 중랑구민회관, 보성여고,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성심여자고등학교,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등

전자음악연구소

전자음악 연구소에서는 2009년 가을부터 학생들과 함께 더욱 실용적인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작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모델이다. 작업의 목표는 두 개의 방법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은 전통적인 악기로 이제까지 만들어 않았던 새로운 사운드(sound)와 노이즈(noise)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올리비에 메시앙의 모델은 작곡하는데 새로운 소리를 사용하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ounds of Korea'

서울대학교 국악연주단 유럽순회연주
SNU Korean Music Ensemble Europe Concert Tou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주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약2주간에 걸친 유럽순회연주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유럽순회연주는 국악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의 결실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되었다. 음악대학 재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27명의 국악연주단은 유럽의 주요도시에서 강의와 워크샵, 그리고 3번의 연주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주는 2001년 음악대학과 교류를 맺은 유럽 명문 음악대학인 독일 만하임음대를 시작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ISB Theatre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수제천(집박: 강사준 교수), 시나위, 산조(가야금: 이지영 교수), 정가 등 한국전통음악뿐 아니라 현대창작곡, 그리고 사물놀이와 재즈앙상블과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특히 사물놀이와 재즈앙상블의 공연은 현지언론의 극찬을 받았으며 연주한 학생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연주회 이외에도 이지영 교수의 현대가야금 기보법 강연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전통악기와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외국학생들이 한국전통악기를 위해 쓴 작품을 연주하는 워크샵콘서트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만나며 공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통악기와 한국음악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각 연주마다 상당히 많은 관객이 왔으며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공연 후 동양문화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현지 대사관의 협조로 지역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악연주단 공연에 대한 언론의 호평을 남겼다. 더불어 참가한 학생들도 한국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대단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타문화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국악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국악연주단의 유럽순회연주는 세계 속에 한국음악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으며 나아가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국과 유럽 각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의 효과는 극대화되었으며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을 통해 한국의 미(美)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발자취를 이어가는 것으로 각 나라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며 문화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협력의 자리가 되었다.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국위선양과 더불어 한국음악의 미와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한국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서울음대와 2001년부터 교류협정을 맺은 독일 만하임대학교
2. 한국전통악기를 위해 곡을 쓴 독일 만하임대학 작곡과 학생 Kian과 이야기하는 모습
3. 독일 만하임대학 작곡과 학생(Kian, Benjamin)과 서울음대 작곡과 학생(양수철, 이용석)과의 만남
4. 만하임대학 작곡과 Sydney Corbett 교수
5. 독일 만하임 공연장 Alte Feuerwache
6. 독일 만하임 Alte Feuerwache에서의 시나위 연주
7. 독일 만하임대학 Rudolf Meister 학장(Pf.)과 Jean M. Tanguy 교수(Fl.)의 연주
8. 독일 Bremen대학 박영희 교수의 '귀한님' 연주 후
9. 사물놀이와 재즈앙상블 합동연주 지도를 해주신 만하임대학의 J. Cortijo 교수와 M. Küttner 교수
10. 사물놀이와 만하임재즈앙상블 합동공연
11. 벨기에 브뤼셀 ISB 국제학교 교장선생님 Kevin Bartlett의 인사말씀
12. 벨기에 공연의 많은 외국인 관객들
13. 벨기에 브뤼셀 ISB Theatre에서 수제천 연주(집박 : 강사준 교수)
14. 벨기에 브뤼셀 ISB Theatre에서 여창가곡 연주(여창 : 이윤진)
15. 벨기에 브뤼셀 ISB Theatre에서사물놀이 연주(최소리, 최혜원, 민현경, 윤하림)
16. 벨기에 왕궁 앞에서 단체사진
17.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Centre Culturel Coreen en France)
18.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최준호 원장님의 인사말씀
19.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이지영 교수의 가야금산조 연주
20.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민요 연주(민요 : 민현경)

서울대학교 국악연주단 유럽순회연주 인터뷰

교수 인터뷰_ 이지영
학생 인터뷰_ 양희진

이지영 교수(국악과, 가야금)

1. 국악연주단이 유럽에서 순회연주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이번 공연은 국악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연주한 것이었는데 현지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게 된 일이 가장 의미 있고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독일 만하임에서의 일정이 너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인원에 비해 리허설, 세미나, 워크샵콘서트, 연주 등 일정이 매우 많아 여유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하임대학 작곡과 학생들이 한국전통악기를 위해서 쓴 작품을 연주하는 워크샵콘서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외국작곡가와의 공동 작업은 학생들에게도 연주활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수님께서는 해외에서 국악을 연주할 기회가 많을셨을텐데요, 연주 후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이번 연주 때 관객의 호응은 어땠는지요?

이번 연주 때 관객의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 연주마다 기립박수과 앵콜이 쏟아졌으며 기대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객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궁중음악 연주를 통해서는 국악이 대단히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고 민속악 연주를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외국에서의 연주기회가 많아서 이러한 반응이 익숙한 편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아마 대부분 처음 있는 일이었겠지요. 각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세계 속의 다양한 음악 가운데 국악이 갖는 장점과 앞으로 국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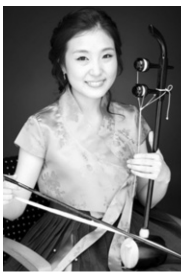
세계의 여러 음악 가운데 국악은 전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음악은 현대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악의 전통성이 오히려 현대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전통적인 것이지만 세계에서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러한 점이 국악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남겨주세요.

항상 전통음악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더욱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두고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양희진(서울대 음악과 석사과정, 해금전공)

1. 이번 유럽순회공연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음악을 전할 수 있었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과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더불어 소중한 만남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2. 일정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독일에서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였기에 더욱 긴장되기도 했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리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에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 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커튼콜에 우리 음악이 세계 속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지난 준비 과정의 어려움마저도 너무나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프로그램인 사물놀이와 재즈앙상블과의 공연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준 신명나는 공연이었고, 연주 후에는 함께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나 감격스럽고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3. 연주를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음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연주 기술만이 아닌, 무엇보다 우리 전통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나 선후배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기와 집념, 그리고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멋진 연주를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의 나태함을 반성하게 되었고 연주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전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곡과 무대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SNU 국악연주단 유럽순회연주 독일 현지 신문기사〉

Trommeln, Bambusflöten und Schalmeien
Die Rheinpfalz 23.6.09
Konzert mit Studenten und Dozente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 der Mannheimer Musikhochschule in der Feuerwache

VON RAINER KÖHL

Westliche Avantgarde und koreanische Tradition trafen in der Alten Feuerwache in Mannheim aufeinander. Studenten und Dozenten der Musikabteilung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us Südkorea und der Musikhochschule in Mannheim bestritten gemeinsam das Abschlusskonzert eines Austauschprojekts.

Die koreanische Musik zählt zu den ältesten Formen der Kunstmusik weltweit. In eine geheimnisvolle, lange verschwundene Welt führte die höfische Musik des SNU Music Ensemble. Der ruhige Puls der Trommel, der Klang der Bambusflöten, der scharfe Klang der Kniegeigen und der Schalmeien, die pentatonischen Melodien, all das vereinte sich zu einem Klang von großer Farbigkeit und exotischem Zauber. Sehr konzentriert musizierte das Ensemble unter Leitung von Sajoon Kang. Der scharfe, näselnde Klang des Schalmeien-Instruments Piri, die rituellen Rhythmen der Percussion gaben auch bei traditioneller Volksmusik aus Korea den Ton an: ruhig suggestiv, improvisatorisch, klang diese fast wie eine Jazznummer. Nicht minder einnehmend war der trommelbegleitete Solo-Gesang von Hyunkyung Min zuvor.

Ein wichtiges Anliegen solcher Begegnungen zwischen den beiden Hochschulen ist auch der musikalische Austausch der Kulturen und das gemeinsame Musizieren. Das Instrument, das die Völker am besten zu verbinden vermag, ist das Schlagzeug, sagte Michael Küttner, als er den letzten und gemeinsamen Programmpunkt des Abends ankündigte. Und dazu war ein koreanisches Schlagzeugensemble mit jenem der Jazzabteilung der Mannheimer Hochschule vereint.

Was die vier jungen Schlagzeugerinnen aus Seoul dabei hören ließen, war absolut begeisternd. Wie diese Gong, Basstrommel und Becken bearbeiteten, mit wie viel Vitalität, tänzerischem Elan und Fantasie, das war ebenso hochmusikalisch wie mitreißend. Ihren Perkussionsinstrumenten gaben die vier Studentinnen dabei individuellen Charakter. Brodelnde Congarhythmen von José Cortijo und zwei seiner Studenten und Küttners Schlagzeug waren eine gute Basis für die atmenden Rhythmen der Koreanerinnen. Etwas banal wirkten da nur die abgenudelten Jazzthemen der beiden Saxophonisten.

Für das Gastensemble aus Korea schrieb die renommierte, in Bremen lehrende Komponistin Younghi Pagh-Paan das Stück „Qui-han Nim". Dabei komponierte sie erstmals für traditionelle koreanische Instrumente und kam damit zum Kern ihres Stils, den sie bisher immer mit westlichen Instrumenten verfolgte. Hell gleißende, mikrotonale Tonfolgen entfalteten Mundorgel und Bambusflöte, reizvoll geerdet von einer sonoren Zither. Friedrich H. Kern hat in Mannheim studiert, für die mit einem Stabplektron gespielte Tischharfe Geomungo schrieb er die Komposition „anima", erdig archaische Töne von großem Reiz. Zuvor spielten die beiden Hochschullehrer Jean-Michel Tanguy und Rudolf Meister Isang Yuns „Garak", das westliche Avantgarde und koreanische Tradition fesselnd verband.

"SNU 국악연주단의 궁중음악은 신비롭고 오랫동안 사라졌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고요한 북의 맥박, 대금의 음색, 거문고와 피리의 날카로운 음색, 민속음계 선율들은 거대하고 다채로운 색깔과 이국적인 매력으로부터 하나의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SNU 국악연주단은 강사준 교수의 지도하에 매우 집중적으로 연주에 임하였다. 날카롭고 비음이 섞인 피리의 음색과 타악기의 전통적인 장단은 한국전통민속음악의 색깔을 표현하였다. 또한 북과 동반된 민현경의 판소리는 매혹적이었다."

"4명의 한국 타악 연주자들이 들려주었던 연주는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그들이 엄청난 생명력과 춤을 추는듯한 열정, 환상을 갖고 사물놀이 악기를 다루었을 때 관중들을 열광시킬 만큼 뛰어난 음악적 수준을 보여주었다. 4명의 타악을 연주하는 학생들은 그들 각자의 악기에 개별적인 특성을 부여했다. Jóse Cortijo의 끓어오르는 듯한 콩가 리듬, 2명의 학생과 Küttner의 타악기연주는 한국연주자들의 숨 쉬는 장단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Die Rheinpfalz(09.06.23)

MM 15.6.09

Klassik: Konzert mit Musikern aus Seoul und Mannheim

Klingende Kontraste

Ein außergewöhnlicher musikalischer Brückenschlag ist am Sonntag, 21. Juni, 20 Uhr, in der Alten Feuerwache Mannheim zu erleben. Musiker der Mannheimer Musikhochschule und von deren Partnerhochschule,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reten im Wechsel und auch gemeinsam auf. Zu hören gibt es zunächst traditionelle koreanische Musik. Danach erklingt neue koreanisch-europäische Musik mit einer Uraufführung von Friedrich Heinrich Kern sowie Kompositionen von Isang Yun und Younghi Pagh-Paan. Zum Abschluss improvisieren das durch Crossover-Projekte berühmt gewordene koreanische Schlagzeugensemble Samulnori mit Jazzmusikern der hiesigen Musikhochschule. Der Abend unter dem Motto „Seoul meets Mannheim" ist eine Kooperation des Kulturzentrums Alte Feuerwache und der Gesellschaft für Neue Musik Mannheim. gespi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다시 살아나는 전통음악을 통해 매우 큰 즐거움을 주었다. 관악기와 현악기의 음색은 매혹적이었고, 자유로운 연주자세는 때때로 재즈에 더욱 가까이 접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세계음악'의 경향을 갖고 있다(....) 연주의 대단원에서 한국의 타악 연주자들이 만하임 재즈 앙상블과 만났을 때, 곧 소리의 융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Mannheimer Morgen(09.06.23)

국악과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5일-16일에 걸쳐 재학생들이 연주하는 제51회 국악과 정기연주회와 졸업생들이 연주하는 동문연주회, 그리고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10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9월 15일(화) 1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 제51회 국악과 정기연주회
9월 16일(수) 09:30 국립국악원 우면당 – 국제학술회의
9월 16일(수) 1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 국악과 동문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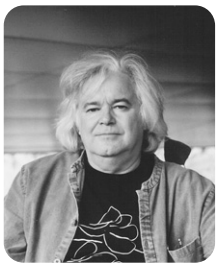
음악대학 외국인교수 INTERVIEW

Roland Breitenfelt
Aviram Reichert
Hilary V. Finchum-Sung

서울대학교 교수 중 외국인은 현재 약 40명으로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악대학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재 음악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는 모두 3명이다. 바로 작곡과의 롤란트 브라이텐펠트(Roland Breitenfelt) 교수와 기악과의 아비람 라이커트(Aviram Reichert) 교수, 그리고 국악과의 힐러리 핀첨 성(Hilary V. Finchum-Sung) 교수이다. 평소 외국인이라 다가가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르는 교수님들께 궁금했던 점들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았다.

Q 1. 출신나라와 음악대학에 부임하신 연도는 언제이신가요?
Q 2. 음악대학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Q 3. 한국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 4.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Roland Breitenfelt
(작곡과 전자음악)



1.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왔으며 2006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부임하였습니다. 1998년 아내와 함께 서울을 처음 방문한 후로 한국의 멋진 도시와 아름다운 문화에 매혹되었습니다.

2.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맞는 첫 학기(2006년 가을)에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곡과 이돈응 교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새로운 전자스튜디오를 도안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자와 펜과 종이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들의 벽과 벽 사이가 90도로 각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돈응 교수님은 원래 계획했던 원본을 가지고 와서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좋은 작업환경을 갖춘 스튜디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3. 한국 학생들이 더 겸손하고, 즐거워하며 배우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Aviram Reichert
(기악과 피아노)

1. 저는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왔으며 2009년 3월에 음악대학에 부임하였습니다.

2. 저는 1996년에 서울에서 피아노콩쿨 심사가 있어서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학생들이 매우 어렸는데 음악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와서는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들 음악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인상에 남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오르막 언덕이 많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도 잘 몰랐으며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행히 문익주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실력 면에서 보자면 한국학생이나 외국학생이나 주어진 재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들의 일상을 보았을 때 한국학생들은 가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루 종일 연습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 멋진 자연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방학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음악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먼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근면성실해야 하고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 젊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심각하거나 우울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항상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Hilary V. Finchum-Sung
(국악과 민족음악학)

1. 저는 미국에서 왔으며 2009년 3월에 음악대학에 부임했습니다.

2. 서울대학교에 온지 아직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을만한 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만 친절하게 대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세계음악과 민족음악방법론 수업을 했는데 모두 영어수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서 학기말 research project 발표시간에 과제를 매우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발표할 때 조금 긴장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참 귀엽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대학교가 왜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국악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습니다. 또한 세계음악과 민족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싶습니다.

3.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인디애나 대학과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잠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미국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라도 질문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 물어보며 저 또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반면 한국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중에는 조용히 있다가 수업 후에 질문을 한꺼번에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제가 이해했느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하기보다는 고개만 끄덕거리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지 않거나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점이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워낙 달라서 생기는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에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미국의 대학은 졸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매우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긴장을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게 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제가 외국인이라서 약간 거리감을 두고 가끔은 무섭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편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족음악학에 관한 것 말고도 유학이나 교환학생에 관한 것 등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실로 와서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영어로 대화할 때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문법의 맞고 틀림보다 자신의 생각(idea)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법에 맞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보다 학생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대학 단/신

Summer Music Academy
Summer Viola Workshop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
국악과 강사준 교수 정년퇴임
음대 동창회 소식
후기 학위수여식
음대 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김영욱 교수의 Summer Music Academy

2009년 7월 31일~8월 11일, 11일 동안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오희숙 교수) 주최로 기악과(바이올린 전공) 김영욱 교수의 제4회 'Summer Music Academy'가 열렸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총 17명의 수강생들은 오전 10시부터 50분 간격으로 3~4회의 레슨을 받았으며 매일 많은 청강생들이 레슨실을 찾았다. Music Academy의 마지막 날에는 '김영욱과의 대화'가 있었고, 이 날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수료식 및 김봄소리(서울대), 박성미(NEC), 고은애(서울대) 학생의 연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이 지난 7월 20일~7월 31일, 11일간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17명의 수강생들은 오전 10시부터 50분씩 예술관 실내악실에서 3~4회의 공개 레슨을 받았다. 30, 31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15명의 수강생들이 각자 준비한 레퍼토리를 연주했으며, 특히 수료식이 겸해졌던 31일 연주회에서는 17명의 수강생 전원이 최은식 교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 G. Jacob의 'Suite for 8 Violas'를 앙상블로 연주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

지난 4월 26일(토) 제2회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가 열렸다. 식전 행사로는 음대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음대 건물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대를 빛낸 음악인들과 각 과의 정기연주회, 강의내용과 연구소 소식, 그리고 해외 음악원들과의 교류 내용 등 음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도서실과 전자음악실, 국악 관현악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들을 탐방한 후 본부행사에 참여하였다.

본부 행사로는 국악과 창립 50주년 기념 전통음악연주회와 갈라콘서트가 준비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전통음

악연주회에서는 수제천(집박: 정대석 교수)과 임재원 교수의 대금독주, 시나위, 판소리, 사물놀이 연주가 있었으며 갈라콘서트에서는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SNU Philharmonic Orchestra와 함께 이경선 교수, 박미혜 교수, 박현재 교수의 협연과 SNU Brass Ensemble, 음대 오페라연구소 중창단, SNU Vocal Choir가 멋진 연주를 선보여 많은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학부모 초청행사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서울음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악과 강사준 교수 정년퇴임

지난 8월 31일 국악과 강사준 교수(해금전공)의 명예로운 교수정년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국악교육이 잡혀야 국악의 장래가 잡힌다"는 강사준 교수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수준 높은 연주와 더불어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데 매진하였다. 그는 1968년 창설된 육군 국악대의 초대 국악대장을 역임했고 1992년 조직된 해금연구회에서 17년간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동양음악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왔다. 또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농악회 운영위원과 해금연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특별히 지난 6월, 국악과 창립50주년을 기념하여 국악연주단 유럽순회연주를 함께한 강사준 교수는 독일 만하임음대 재즈앙상블과의 합동공연을 지도하고 연주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외국인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신비한 음악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양의 즉흥음악인 재즈와 한국의 즉흥음악인 산조가 만난 소리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말과 함께 "결국 국악의 양 축인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그 하루하루가 모인 세월은 금방 흘러가 버린다"며 "늘 자기가 처한 상황에 최대한 적응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강사준 교수는 정년퇴임 이후에도 명예교수로서 국악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가르침을 줄 예정이며, 오는 9월 16일에 열리는 국악과 동문연주회(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지휘를 맡아 더욱 뜻 깊은 연주를 들려 줄 예정이다.

(대학신문 부분 발췌)

음악대학 동창회 소식

- 지난 3월 열린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서계숙 회장님이 서울음대 동창회 회장으로 재임되어 3년간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동창회에서는 음대를 졸업한 약 7,000여 명의 동문들의 소식을 동창회보를 통해 전하고 있으며, 동창회의 활성화와 해외음대동창회의 지원, 음악교류 및 음악회 후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동창회 관련 문의: 02-876-1440)

- 전 음대학장인 신수정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예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Arts, The Republic of Korea)의 회원이 되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 지원하고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며, 예술원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이다. 예술원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예술의 창작 ·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참조: www.naa.go.kr)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31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에는 학장과 부학장, 학과장 교수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사 음악과 1명, 협동과정음악학 2명, 석사 음악과 14명, 그리고 학사 40명, 총 57명은 그곳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학위를 수여받으며 졸업의 기쁨을 나누었다.

음대 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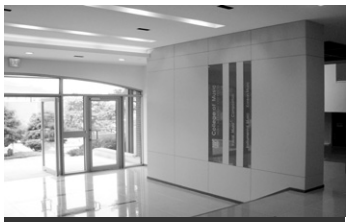
지난 8월 31일, 음대 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 뜻 깊은 자리에는 여러 내빈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더 빛내주었다. 학장, 부학장, 학과장, 서계숙 동창회장, 삼익악기 김민수 본부장, 심일권 이사, 코스모스악기 박영찬 부사장 그리고 교직원 및 학생이 참석한 음대 현관 준공식은 현악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음악대학의 발전적인 미래가 제시되는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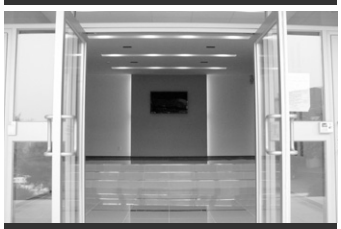
음악대학 환경개선 현황(2009. 2~ 200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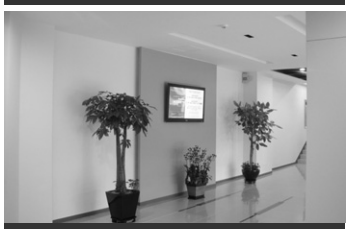
- 2009. 2
  - 55동 시청각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 2009. 3
  - 학장 부속실 및 교수휴게실 환경개선
  - 수업준비실 환경개선
- 2009. 4
  - 학생휴게실 인터넷 카페 설치
  - 직원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 동양음악연구소 환경개선
- 2009. 5
  - 음악대학 전체 보안경비시스템 및 CCTV 설치
  - 정보검색실 컴퓨터 교체
- 2009. 6
  - 도서실 및 CD 감상실 환경개선
  - 자료제작실 리모델링 및 교육자료 정비
  - 실기지도실, 연습실 냉난방기 설치 및 환경개선
  - 기악과 학과사무실 확장 이전 및 환경개선(54동115호→55동301호)
  - 행정실 환경개선
- 2009. 7
  - 예술관 대연습실 냉난방기 설치 및 환경개선
  - 국악과 학과사무실 이전 및 환경개선(54동114호→115호)
- 2009. 7-8
  - 54동 현관 학사안내용 LED 설치 및 환경개선
- 2009. 8
  - 기획홍보실 환경개선 및 이전(54동B101호→109호)

음악대학 현관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후

1. 음대 현관1


2. 음대 현관2


3. 학사안내용 LED 설치 1


4. 학사안내용 LED 설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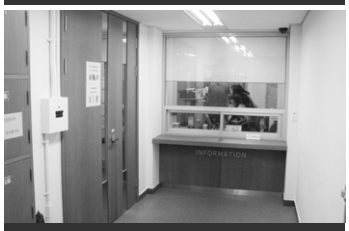
5. 현관 라운지 1

6. 현관 라운지 2

7. 기악과 사무실

8. 작곡과 사무실

9. 자료제작실


10. 도서실 입구

음악대학 인사(2008년 11월 이후)

성악과장	김인혜 (09. 3. 1~)
기악과장	김영률 (09. 9. 1~)
기악과 피아노전공 주임	최희연 (09. 9. 1~)
행정실장	한광실 (08. 11. 6~)
행정실 교무	이지연 (09. 5. 22~)
기악과 사무	김기선 (09. 5. 22~)
성악과 조교	이창원 (09. 3. 1~)
국악과 조교	임란경 (09. 3. 1~)
기악과 조교	이윤하 (09. 3. 1~)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국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기악과, 피아니스트 Aviram Reichert 교수 임용

천부적인 곡 해석과 경이로운 테크닉, 황홀한 음조로 세계인의 각광을 받고 있는 아비람 라이커트(Aviram Reichert)씨가 서울음대 기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 스타인웨이 아티스트(Steinway artist)에 올라있는 아비람 교수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 프랑스 에피날국제콩쿠르 그랑프리, 일본음악제, 쾰른, 브레멘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하는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수상경력으로 유명하다.

국악과, Hilary V. Finchum-Sung 교수 임용

17년 전 한국전통음악을 처음 듣고 음색의 신비에 매료되어 동양음악 가운데서도 국악의 독창성을 연구해온 힐러리 핀첨 성(Hilary V. Finchum-Sung)씨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미국 미들테네시주립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인디애나대학에서 민속학과 민족음악학을 전공(석사, 박사)한 핀첨성 교수는 단행본 '1930년대 한국의 신민요'를 펴냈고, '이론에서 실제로: 한국 작곡자들의 변' 등 한국음악과 관련한 논문도 다수 내놓았다. 지난 3월부터 일반교양 과목 '세계의 음악'과 국악과 전공과목 '민족음악학개론'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성 악 과

박미혜 교수, 오페라 '라 보엠' 출연

(사)글로리아오페라단은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5월 26~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였다. 파올로 타리치오티의 지휘와 국내 정상의 성악가들과 함께 박미혜 교수는 미미(Mimi) 역을 맡았으며 연출가 방정욱의 현대적 감각의 연출로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이번 연주는 작품의 배경을 현대로 옮기고 예술가들의 꿈과 현실을 감각적 무대와 조명으로 표현하였다.

박세원 교수와 김인혜 교수, 오페라 '토스카' 및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출연

지난 4월 30일-5월 2일, 고양 아람누리 극장에서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오페라 '토스카'가 연주되어 박세원 교수(카바라도시 역)와 김인혜 교수(토스카 역)가 공연을 하였다. 또한 7월 25-26일 서울광장에서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가 공연되었다. 서울시오페라단장을 맡고 있는 박세원 교수는 예술총감독과 뚜릿뚜 역으로,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는 산뚜짜역을 맡았으며 지휘는 최선용, 연출은 장재호가 맡았다. 이번 공연으로 무더운 여름을 서울에서 보내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하고 감동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박현재 교수, 오페라 베르테르 출연

지난 7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베르테르(Werther)' 제작발표회가 있었다. '베르테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작품이며 이 공연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모두 공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예술감독 및 지휘는 김덕기 교수가 맡았으며 박현재 교수는 베르테르 역할을 맡았다. 오는 10월, 11월에 공연 예정이다.

작 곡 과

정태봉 교수와 이돈응 교수, '운지회 포럼 Lecture Concert Ⅷ' 작품 발표

지난 5월 17일, 국립국악원에서 '2009 운지회 포럼 Lecture Concert Ⅷ'가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정태봉 교수는 '국악기를 위한 현대음악'이라는 주제로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쓰는 국악기를 위한 앙상블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이에 관한 작품인 정태봉 교수의 '이른새벽 여린 찻잎 이슬에 맺힌 한 세상'과 이돈응 교수의 '2대의 대금과 전자음악을 위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정태봉 교수, 교향시 '고구려' 작품 발표

지난 6월 12일, 부천필하모닉의 제134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필립 베르놀드의 지휘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생상스의 '교향곡 3번'과 함께 정태봉 교수의 교향시 '고구려'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고구려 역사를 음악으로 읊는 한편의 서사시(敍事詩)로 고구려 역사 보전에 작은 거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작곡가는 전했다.

이신우 교수, 크마앙상블 정기연주회 작품 발표

지난 7월 27일, 세종 체임버홀에서 크마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한국작곡가의 밤'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관객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신우 교수의 '한 여름 밤을 위한 9중주(Nonet for a summer evening)'가 연주되었다.

최우정 교수, 스테이지 모놀로그

지난 7월 23-25일, LIG아트홀에서 '스테이지 모놀로그' 연주회가 열려 음악극, 극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았다. 최우정 교수는 작곡가 노선락과 함께 기존에 발표됐던 '행복한 왕자' 중 몇 곡을 발췌하여 연주한 뒤, 마지막에 '시간'이라는 주제로 작곡된 서로 다른 두 곡을 번갈아 들려주었다.

기 악 과

최희연 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지난 6월 26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연주회가 있었다. 이대욱 한양대학교 교수의 지휘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관현악을 위한 '수수께끼 변주곡'을 비롯하여 최희연 교수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이 연주되었다.

주희성 교수, 피아노 독주회

지난 3월 10일 우인아트홀에서 개관1주년 기념 음악회 명연주가 초청시리즈로 주희성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었다. 이 날 공연에서는 헨델의 '프렐류드', 브람스의 '변주곡', 라벨의 '라발스' 등이 연주되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지난 5월 22일, 박종화 교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449회 정기연주회 때 협연을 하였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연주하였다.

Aviram 교수와 이경선 교수, 하우스 콘서트 연주

지난 5월 29일, 박창수의 하우스콘서트 224회 실내악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에 이경선 교수와 Aviram 교수가 연주에 참여하였다. 이번 연주는 대중들에게 쉽고, 애호가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삼중주'와 브람스의 '피아노 삼중주'를 연주하였다.

김영률 교수, 아울로스 목관5중주 연주

지난 8월 20일, 예술의전당에서 아울로스 목관5중주의 제23회 정기연주회가 열려 김영률교수가 연주를 하였다. '목관5중주를 위한 춤곡과 조곡'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F. Farkas의 'Five Hungarian Dances', D. Agay의 'Five Easy Dance' 등이 연주되었다.

최경환 교수, 타악그룹 4plus 제15회 정기연주회

지난 7월 24-25일, 서울음대 예술관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타악그룹 4plus의 15회 정기연주회가 열려 최경환 교수가 연주를 하였다. Daniel Buess(Perc.), Christoph Bosch(Fl.), Toshiko Sakakibara(Cl.), 그리고 국내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타악기를 위한 여러 작품이 연주되었다.

윤혜리 교수와 백주영 교수, 2009 교향악축제 협연

교향악축제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2009교향악축제는 전국17개 교향악단과 우리나라 음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최고의 연주자가 참여하여 화려하고 감동적인 사운드로 축제의 장을 펼치는 음악회이다. 지난 4월 8일에는 백주영 교수가 김홍재의 지휘로 울산시립교향악단과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를 협연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윤혜리 교수가 제수스 아미고의 지휘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플룻협주곡 2번'을 협연하였다.

백청심 교수, SNU Celli Ensemble 연주

지난 7월 23일, 영산아트홀에서 백청심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SNU Celli Ensemble의 연주가 있었다. 작곡가 Fitzenhagen, Bizet, Lidemann, Villa-Lobos, Piazzola 등 첼로를 위한 다양한 작품이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첼로가 가진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최은식 교수, 'Viola Night' 및 '7인의 음악인들' 연주

지난 5월 21일, 금호아트홀 클래시컬 프론티어 시리즈 중 하나로 최은식과 함께하는 'Viola Night' 연주회가 열려 파가니니와 브람스, 바하 등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또한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정명훈, 비올라의 최은식, 첼로의 양성원과 송영훈, 피아노의 김선욱, 바이올린의 이유라와 김수연 등 50대 마에스트로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거장까지 '7인의 음악인들'의 공연이 8월 2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12번',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3중주 2번', 슈만의 '피아노5중주'가 연주되었다.

국 악 과

강사준 교수, 해금연구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6월 4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14회 해금연구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수제천 연주에서 강사준 교수는 집박을 맡았으며, 이날 정태봉 교수의 '실내악을 타고 흐르는 노래-나 여기에'와 김승근 교수의 해금협주합주곡 1번 '실바람 대바람'이 연주되었다.

임재원 교수, 대금독주회

지난 4월 1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임재원 교수의 대금 독주회가 열렸다. 이 날 공연에서는 전통음악 수제천과 해령, 그리고 위촉초연곡인 '낯섦의 연휴', '연리지', 대금독주곡 '기항지'가 연주되었다.

정대석 교수, 동보악회 "거문고 소리, 봄을 꽃피우다" 연주

지난 4월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동보악회 연주가 열렸다. 거문고연구회 동보악회는 KBS국악관현악단, 전주시립국악단 등의 정기연주와 기획연주에 출연하여 다양한 거문고음악을 선보인 단체이다. 이 날 정대석 교수가 작곡한 '선물', '보리피리', '무언가', '열락', '미리내' 등이 연주되었다.

이지영 교수, '가야금연주회-다름슈타트에서 음악극을 만나다'

이지영 교수가 6월 1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지영 가야금 연주회-다름슈타트에서 음악극을 만나다'를 통해 전통악기 가야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작곡가들과 진행한 워크샵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로 다케오 구도, 도널드 리드 워맥, 토마스 오즈본, 정일련, 김남국 등의 곡을 통해 가야금의 아방가르드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김승근 교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연주회 실내악곡 발표

국립국악원은 6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창작 실내악곡으로만 구성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73회 정기연주회 '공간, 소리의 여운을 그리다' 무대를 선보였다. 이 날 김승근 교수는 토속민요를 활용해 만든 '국악기를 위한 5중주'를 초연하였고, 이 외의 창작 실내악곡들은 다양한 편성과 새로운 음색으로 현대 전통음악의 멋을 느끼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음악대학 회원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 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이다. 회원에게는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음대소식지 우송
- 프렌즈 회원 카드 배송

■ 회 비
- 1년 회비: 10만원, 2년 회비: 20만원, 3년 회비: 25만원, 4년 회비: 30만원
  농협 079-01-469806(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02-880-93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문 의:** 음악대학 학장실 02-880-7900 /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872-4149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28호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우151-818)

〈 콩쿨 입상 소식 〉

| 성악과 |
- 09 중앙일보 음악콩쿨 여자부 3위 박혜상(07)
- 09 The Music 콩쿨 1위 김주혜(06)
- 09 이화경향콩쿨 남자부 2위 김광현(03) / 여자부 1위 없는 2위 이윤경(05), 김주혜(06)
- 09 음악춘추 콩쿨 1위 이명현(07) / 2위 송호연(03)
- 09 전국수리음악콩쿨 대상 이명현(07) / 1위 이윤경(05) / 3위 이정명(04)
- 09 슈베르트 콩쿨 1위 한규원(01)

| 작곡과 |
- 우리가곡연구회 현대창작가곡 1등 지성민(03)
- 제 4회 음연 작곡 콩쿨 1등 황미래(04)
- 제 35회 중앙 음악 콩쿨 작곡 부문 2등 강경묵(06)
- 13th Tokyo International Ensemble Composition Competition 3rd. Prize 정영빈(석사06)
- 09 ACMF International Young Composers Award 3rd. Award 정영빈(석사06)
- 제 3회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 작곡 콩쿨 1등 신은지(08)
- ISCM World Music Day 2009 작곡 부문 입선 곽태평(04)
- 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Winner 조은화(박사)

| 피아노 |
- 제15회 전국수리음악콩쿨 2위 박상우(09) / 3위 김시원(08) / 장려 김상진(07), 유세형(08)

| 관 악 |
- 학생음협콩쿨 2위 이희종(트럼펫, 09)

| 현 악 |
- 중앙일보 음악콩쿨 1등 고은애(바이올린, 08) / 3등 김봄소리(바이올린, 08) / 3등 안영주(첼로, 08)

| 국악과 |
- 난계 국악 경연대회 기악부문 금상 이민영(07)
- 전주 대사습 놀이 기악부문 장원 채길룡(04)
- 우륵 가야금 경연 대회 일반부 금상 정은선(석사 08)
-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부문 금상 최건(06) / 판소리부문 은상 김소진(07) / 가야금부문 은상 이화영(석사09) / 거문고부문 은상 김윤민(05) / 작곡부문 은상 석예리(07) / 정가부문 동상 안정아(07)
- 김해 가야금 경연대회 대상 공유림(07)
- 서울 가야금 경연대회 창작곡 부문 최우수상 이지언(06)